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물살 가르며 1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에서 열린 제15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에서 출전 선수들이 물살을 가르며 시원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선발 투수들 좀 잘해봐

나지완·이용규 등 부상이탈 방망이 대위기
선발진 부활 기대… 삼성·LG와 원정 6연전

'마운드가 살아야 KIA가 산다.'

지난주 안방에서 4승2패를 수확한 KIA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와의 맞대결을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

개막전에서 만났던 삼성과는 리턴매치. 개막 2연전에서 1승1패를 주고받았던 KIA와 삼성은 나란히 7승6패를 기록하며 공동 4위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LG는 특유의 타력에 마운드 힘까지 더해지면서 8승5패의 성적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만만치 않은 두 팀과의 6연전을 치러야 하는 KIA는 '부상'이라는 변수와도 싸움을 펼쳐야 하는 처지다.

17일 경기에서 부상병이 대거 발생했다. 사구에 왼발목 부상을 당했던 나지완이 주루플레이를 하는 도중 비골 골절로 수술대에 올랐다. 이용규도 허벅지 근육 부분파열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절정의 타격감을 보이고 있던 '차포'가 동시에 부상병이 됐다. 막강 선발로페즈는 스파이크에 오른발 뒤꿈치가 찍히는 부상을 입었다.

타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범호도 이날 경기 도중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됐다. 김상현도 허리 통증을 안고 있고, 어깨 수술을 받았던 안치홍은 앞선 두산전에서 베이스를 잘못 밟아 발목을 삐끗하면서 허리까지 좋지 않다.

타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신음하면서 KIA는 불붙은 방망이에 영향이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KIA는 18일 나지완·이용규와 함께 좌완 박정태를 2군으로 내리고 김원섭·최훈락·윤정우 3명의 야수진을 1군으로 불러들였다. 물량공세로 타선의 위기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18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13	10	3	0	0.769	-	1패
2	LG	13	8	5	0	0.615	2.0	1패
3	두산	13	7	5	1	0.583	2.5	1패
4	KIA	13	7	6	0	0.538	3.0	1승
4	삼성	13	7	6	0	0.538	3.0	1승
6	넥센	13	5	8	0	0.385	5.0	1승
7	롯데	13	4	8	1	0.333	5.5	1승
8	한화	13	3	10	0	0.231	7.0	1패

그러나 KIA의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운드 특히 선발진의 부활이다. 올 시즌 KIA 선발진에서 로페즈와 트레비스 두 용병만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고 있다.

로페즈는 세 번의 등판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를 끊으며 3승을 가져갔고, 트레비스도 시즌 첫 완봉승의 주인공이 되면서 1승을 기록하고 있다. '마운드 초반 기선제압=타선의 집중력 발휘'라는 승리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험난한 한 주를 앞두고 좌완 양현종이 가장 먼저 마운드에 투입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안타 하나가 가른 희비

김상현 타격감 살리며 멀티히트
나지완 주루 중 발목 골절 '눈물'

공 하나에 김상현과 나지완의 희비가 엇갈렸다.

KIA 김상현은 17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나흘로 3타점을 올렸다.

김상현은 "연습때와 다르게 제대로 된 타격을 하지 못했다. 첫 안타가 잡히는 줄 알았는데 운도 따르고 부담을 덜었다. 홈런 욕심을 줄이고 꾸준한 타격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김상현은 개막 두 경기만에 만루포를 쏘아올렸지만 15일까지 5경기에서 20타수 무안타의 긴 침묵을 이어갔다. 5경기에서 기록한 삼진은 10개. 잘 맞은 타구가 호수비에 막히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첫 타석에서부터 행운이 더해진 안타가 나왔다. 강습타구가 2루수 앞 쪽으로 향하면서 라인드라이브가 되는 것 같았지만 슬라이딩을 하던 이여상의 글러브를 스치면서 1타점 적시타가 됐다.

나지완에겐 눈물의 안타가 됐다.

나지완은 김상현의 앞 타석에서 우전 적시타를 터트리며 1루에 진루해 있던 상황. 글러브에 빨려들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공이 빠지는 걸 본 나지완은 전력 질주를 하다가 비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간결하게 타격폼을 바꾼 뒤 11경기에서 0.379의 타율을 기록하는 등 타격감이 물이 올랐던 터라 아쉬움은 더 컸다. 나지완은 "2루를 도는 순간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왔다"고 말했다.

18일 핀고정 수술을 받은 나지완의 복귀에는 6~8주가 필요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5〉 타이거즈 KS 첫 우승

한국프로야구 2년차를 맞이한 1983년의 챔피언 결정 방식은 전기 우승팀과 후기 우승팀 간의 7전4선승제의 한국 시리즈를 펼쳐 최종 우승 팀을 가리는 것이었다.

전기 우승팀은 전라·광주연고의 해태 타이거즈였고, 후기 우승팀은 서울 연고의 MBC 청룡이었다. 해태 타이거즈는 1차전부터 3연승(7-4, 8-4, 5-3) 후 4차전 1-1무승부 그리고 5차전 8-1승으로 1무 포함 4전 전승으로 1983년 챔프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1983년 한국 시리즈의 백미는 연장 15회까지 이어진 1-1 무승부 경기였다. 3연승의 해태가 에이스 이상윤을 투입해 쉽게 끝낼 것 같았던 시리즈가 이길환·오영일·하기룡으로 배수의 진을 친 MBC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연장 15회까지 가는 숨 막히는 혈투 끝에 1-1무승부가 된 장면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1983년 프로야구를 빛낸 불멸의 스타 플레이어를 소개한다.

1983년 MBC 청룡과 대결
4전 전승으로 챔프 등극

원년 홈런왕 김봉연과 치열한 홈런왕 레이스를 펼치다 김봉연이 교통사고로 도중하차한 레이스에서 27개의 홈런으로 홈런왕에 오른 '헐크' 이만수(삼성), 일천한 한국 프로야구계를 좌지우지하며 믿기지 않은 시즌 30승의 대기록을 세운 재일동포 '너구리' 장명부, 사이드스로의 신기원을 연 승률 1위의 이길환(MBC), 체중만큼이나 묵직한 직구로 방어율 1위에 오른 하기룡(MBC), 투수 분업화의 성공사례 표본이 된 전문 소방수 황태환(OB), 타율 0.369로 '타격의 달인, 스프레이 히터, 안타 제조기' 등의 별칭을 얻은 좌타자의 거목 장효조(삼성), '좌효조 우종모' 우타자의 거목 김종모(해태), 도루의 3대요소인 스피드, 센스, 슬라이딩의 기술을 두루 갖추고 2연속 도루왕 타이틀을 차지한 김일권(해태).

중장거리 타자로 서울내기의 표상이 된 최초의 신인왕 '미스터 OB' 박종훈(OB), 상처를 감추기 위해 콧수염을 길러 그의 상징을 만든 콧수염의 사나이 김봉연(해태), 1루 수비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발레리나, 학다리' 신경식(OB), 뛰어난 투수 리드와 함께 뚝심 좋은 철벽 수문장으로서 미소를 잃지 않은 '스마일 포수' 재일동포 김무종(해태), 근성으로 똘똘 뭉쳐 육탄용사의 이미지로 오래 기억되는 '베트콩' 김인식(MBC), 물 흐르듯 유연한 유격수 수비의 진수를 보여준 '여우' 김재박(MBC), 190Cm의 장신으로 18게임 연속안타기록을 세운 '신사' 김용희(롯데), 삼미전에서 완봉승을 따내는 등 투타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승부사' 김성한(해태), 그리고 강속구에 낙차 큰 파워커브의 달인으로 해태의 우승의 주역이었지만 지지리 상복이 없었던 '왕눈이'이상윤 등이 큰 별자리로 기록되었다.

김 재 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